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 양 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8.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1-7).**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309장

대표기도 / (1부) 윤성태 장로 (2부) 윤결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시편 3:1~8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말 씬 / **“환난 중에도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God, My Sheild in the Midst of Trouble) / 전종남 목사

찬 송 / 406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31장, 210장 기 도 / 최영종 안수집사

성경봉독 / 히브리서 12:18~29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씬 /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성도의 삶”**

(Living in a Shakable Kingdom) / 전종남 목사

■ 저녁 7시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342장, 421장

성경봉독 / 디모데전서 4:1~5

말 씬 / **“양심이 확인 맞은 자들을 경계합시다!”**

(Beware of the Seared Conscience!) / 전종남 목사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이사야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심상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 주일 1부 | 주일 2부 | 주일 오후 |
|--------|--------|--------|
| 이기숙 집사 | 이상혁 장로 | 최인숙 집사 |

예배 위원

| 2월 | 1부 | 2부 |
|----|-----|------------------|
| 안내 | 김춘자 | 이대기 박선진 남정옥 |
| 헌금 | 김신영 | 최승태 김영덕B 유경순 이영희 |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 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 | |
|-------|---|
| 십 일 조 | 김명순 김승규(차정근) 김춘예 김춘자 심상현 장송자 최인숙 |
| 감사헌금 | 전종남(최경애) 김명순 김병숙 김선정 김승규(차정근) 김영화 김해임 문상필 심상현 엄승빈 윤진태(이기숙) 이상혁(송미숙)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채형국(박광연) 최인숙 홍우표(윤명란) |
| 선교헌금 | 김경희 심상현 |
| 구제헌금 | |
| 교육헌금 | 박광연 최인숙 |

지난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2.15.)

“복된 가정” (시128:1~6)

전 종 남 목사

할렐루야. 이번 화요일은 민속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 명절은 단순한 민속 절기를 넘어, 지난 한 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가족과 함께 부르던 노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게 되는 참된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설날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1.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1~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1절)

복된 가정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경외’란 히브리어로 ‘아래’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설 명절에는 세상 풍습보다 먼저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께 가정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2.사랑 안에서 화목(和睦)합니다(3절).

3절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묘사합니다. 이는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화목’은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가족 간에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상태(살롬)를 가리킵니다. 어른은 자녀를 편견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며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 마디를 건넬 때,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3.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5~6절).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그 복을 그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민 6:27). 야곱과 이삭의 축복 기도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라.”는 신앙적 덕담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는 말, 외모나 몸매를 지적하는 말, 결혼이나 출산을 압박하는 말, 과거의 실수를 꺼내는 말은 하지 맙시다.

축복의 말은 씨앗입니다. 축복의 말이라는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